

남북한 치의학용어의 비교 분석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강사 허진영, 교수 이의웅

1. 서론

분단 50년이 지난 지금 남북한간의 이질화가 심각한 민족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언젠가는 이루어질 통일에 대비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이질화 현상 중 가장 중요한 언어의 이질화 현상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계속되어 왔지만, 치의학 영역의 남북한용어에 대해서는 연구가 전무하다.

현대 한국어는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그 바탕이 마련되었으며, 남북한 언어 규범은 모두 그 근원을 1933년에 제정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¹⁾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언어의 차이는 그렇게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서양의 학이 도입되고 우리말 의학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도 분단 이전이었기 때문에²⁾ 의학용어나 치의학용어도 남북한간에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남북분단 이후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아래서 언어정책의 차이로 언어의 이질화가 초래되었으며, 남한은 미국의, 북한은 러시아(소련)의 영향으로 치의학용어도 남북한간에 상당히 이질화되어 쓰여왔음을 추정할 수가 있다.

의학분야에서는 90년대 초부터 남북한 의학용어 차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나,^{3, 4, 5, 6)} 치의학 분

야에서는 북한용어의 단편적인 소개⁷⁾ 이외에는 본격적인 남북한 치의학용어에 대한 비교 연구가 없었다.

이에 남북한의 치의학용어를 서로 비교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 남북한의 치의학용어 단일화 작업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II. 연구재료 및 방법

1. 연구재료

남북한간의 치의학용어 비교를 위해 북한의 용어는 『구강외과학(1976)⁸⁾』, 『구강외과학(1981)⁹⁾』, 『보철기공학(1976)¹⁰⁾』, 『치주병의 립상(1991)¹¹⁾』, 『6개국어 의학용어사전(1985)¹²⁾』, 『다듬은말(1986)¹³⁾』, 『조선말대사전(1992)¹⁴⁾』을 기준으로 하였다.

남한의 용어는 『해부학용어(1996)¹⁵⁾』, 『치의학용어집(1996)¹⁶⁾』, 『의학용어집(1992)¹⁷⁾』을 기준으로 하고 그 밖의 치의학서적들¹⁸⁻²³⁾을 참고하였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북한의 치의학 관련용어를 이에 해당하는 남한용어와 비교, 분석하였으며 편의상 영어용어를 참고로 기재하였다. 북한용어는 순우리말이 포함된 용어를 우선적으로 북한의 용어로 선택하였고, 남한용어는 대한해부학회의 『해부학용어』와 『치의학

용어집』의 용어를 우선적으로 남한의 용어로 선택하였으며, 『치의학용어집』에 수록되어있지 않은 용어는 『의학용어집』과 기타 치의학 교과서에서 선택하였다.

III. 결 과

남북한 치의학용어를 비교 분석한 결과 남북한 용어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대별할 수 있었다.

1. 남북한이 모두 한자어 용어만을 사용하는 경우

가. 용어가 서로 같은 경우

남북한 모두 한자어 용어가 절대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한자어 용어는 남북한이 대부분 같게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여기에서는 남북한이 같거나 유사하게 사용하는 한자어 용어에 대하여는 나열을 생략한다.

나. 용어가 서로 다른 경우

영어용어	남한용어	북한용어
Adjustable articulator	조절식교합기	자동식교합기
Anesthesia	마취법	무통법, 마취법
Deep bite	심피개교합	심교합
Dental chair	치과치료의자	구강의자
Dental prosthesis	치과보철물	구강정형물
Dental unit	치과기계단위체	구강종합치료대
Dry socket	발치외골염, 건성발치와	치조와건조증
Lesion	병소, 병변	병조, 병변
Lichen planus	편평태선	편평홍색태선
Local flap	국소피판	국소조직편
Malignant pleomorphic adenoma	악성다형성선종	악성혼합종, 다형성선암

2. 순우리말이 포함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순우리말이 포함된 용어의 사용은 남한의 경우 1996년에 제정된 새로운 해부학용어를 제외하면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은 반면, 북한에서는 기초와 임상 치의학의 전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가. 남북한의 용어가 서로 같은 경우

영어용어	남한용어	북한용어
Apex of tongue	혀끝	혀끝
Boiling sterilization	끓임소독	끓임소독
Buccal surface (of tooth)	볼면	볼면
Common carotid a.	온목등맥	온목등맥
Fauces	목구멍	목구멍
Fungi	곰팡이류	곰팡이류
Inferior alveolar n.	아래이틀신경	아래이틀신경
Lower lip	아래입술	아래입술
Mandible	아래턱뼈	아래턱뼈
Oral cavity	입안	입안
Palate	입천장	입천장
Periosteum	뼈막	뼈막
Single rooted tooth	홀뿌리이	홀뿌리이(발)
Toothpick	이쑤시개	이쑤시개
Uvula	목젖	목젖

한편 남북한이 같은 순우리말 용어를 다른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면, '턱밑'이 남한에서는 submandibular region, 북한에서는 submental region을 지칭하여 다른 부위를 지칭하였다. 한편 남한에서는 submental region을 '턱끝밑'이라 지칭하며, 북한에서는 submandibular region을 순우리말로 바꾸지 않고 '악하'라 지칭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영어용어	남한용어	북한용어
Submental lymph node	턱끝밑림프절	턱밑림파절
Submandibular lymph node	턱밑림프절	악하림파절

나. 남북한의 용어가 서로 다른 경우

영어용어	남한용어	북한용어
Angle of mouth	입꼬리	입귀
Central incisor	안쪽앞니	첫째앞이
Edge	모서리	가장자리
External carotid a.	바깥목동맥	겉목동맥
Faucial isthmus	목구멍жал록	목구멍좁은부
Fossa	오목	오모기, 우무기
Hard palate	단단입천장	굳은입천장
Labial frenulum	입술주름띠	입술끈
Lateral incisor	기쪽앞니	둘째앞이
Lingual frenulum	혀주름띠	혀(잔)끈
Lingual papillae	혀유두	혀꼭지
Lingula of mandible	턱뼈혀돌기	아래턱의 작은혀
Masseter muscle	깨물근	깨물기살
Masseteric tuberosity	깨물근거친면	깨물기살거칠이
Maxillary sinus	위턱뼈동굴	웃턱뼈굴
Median groove of tongue	혀정중고랑	혀복판홈
Multirooted tooth	뿔뿌리이	겹뿌리이(발)
Oral cavity proper	고유입안	본래입안
Soft palate	물렁입천장	무른입천장
Sulcus	고랑	홈
Taste bud	맛봉오리	맛망울
Vestibule of mouth	입안뜰	입안앞뜰

다. 북한에서만 순우리말이 포함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영어용어	남한용어	북한용어
Abutment	지대치	기둥이
Agar	한천	우무
Angular cheilosis	구각마란	입귀혈음
Antagonist tooth	대합치	맞선이
Arthralgia	관절통	뼈마디아픔
Bone curette	골큐렛	뼈긋개
Bridge	가공의치	다리이(발)
Canal enlargement	근관확대	(이)뿌리관넓히기
Canal filling	근관충전	(이)뿌리관메우기
Cavity preparation	와동형성	뿔구멍만들기
Chewing	저작	씹기

영어용어	남한용어	북한용어
Cleft lip	구순열	언칭이, 웃입술파열
Dental floss	치실, 치과용 품사	실이새뉘개
Dental plaque	치태	이(발)때
Electrocautery	전기소작기	전기지지개
Enucleation	적출(술)	떼내기(수술)
Explorer	탐침, 엑스플로러	더듬침
Filling material	충전재료	채움감
Fixed bridge	고정식 가공의치	고정틀이
Fracture of jaw	악골골절	턱뼈부러지기
Full denture	총의치	웅근틀이, 전부틀이
Gingival pocket	치은낭	이몸주머니
Heterodont	이형치	모양다른이 발
Impacted tooth	매복치아	묻힌이
Incision of abscess	농양절개	고름집째기
Investing	매몰	묻기, 메우기
Luxation	탈구	빠어김
Macroglossia	거설(증)	큰혀
Malformed tooth	기형치	병신이발
Mottled tooth	반상치	얼룩이발
Mouth respiration	구호흡	입숨[쉬기]
Mumps	유행성 이하선염	돌림귀밑선염
Normal occlusion	정상교합	정상맛물기
Osteomyelitis	골수염	뼈속염
Partial denture	국소의치	토막틀이, 부분틀이
Reduction	정복	맞추기
Salivary calculus	타석	침돌
Scaler	치석제거기, 스케일러	이돌뜯개
Setting point	경화점	굳은점
Silk	견사	명주실
Splint	부목	덧대
Stab wound	자창	찔린상처
Stripping	인접면삭제	덧이발이새치기
Suture	봉합	꿰매기
Tongue coating	설태	혀이끼
Tooth abrasion	치아마모	이 닳기
Tooth alignment	치아배열, 치아정렬	이발줄맞추기
Tooth eruption	치아명출	이나기
Tooth mobility	치아동요	이흔들리기
Toothache	치통	이쓰기
Wound healing	창상치유	상처났기

3. 외래어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가. 남북한의 발음표기가 같은 경우

영어용어	남한용어	북한용어
Amalgam	아말감	아말감
Aphthous stomatitis	아프타성구내염	아프타성입안염
Aspirin	아스피린	아스피린
Epinephrine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Ewing's sarcoma	윙잉육종	윙잉육종
Hormone	호르몬	호르몬
Iodine	요드	요드
Penicillin	페니실린	페니실린
Petrolatum	와셀린	와셀린
Phenobarbital	페노바르비탈	페노바르비탈
Prothrombin	프로트롬빈	프로트롬빈
Titanium	티탄	티탄
Vitamin B ₁	비타민B ₁	비타민B ₁

나. 남북한의 발음표기가 다른 경우
(1) 모음 차이가 있는 예

영어용어	남한용어	북한용어
Alcohol	알코올	알콜
Allergy	알레르기	알레르기아
Calcium	칼슘	칼시움
Cement	시멘트	세멘트
Collagenase	콜라게나아제	콜라게나제
Gram-positive	그램양성	그람양성
Insulin	인슐린	인슐린
Magnesium	마그네슘	마그네시움
Mandrel	맨드릴	만도렐
Vinblastine	빈블라스틴	빈블라스틴
Virus	바이러스	비루스

(2) 자음 차이가 있는 예

영어용어	남한용어	북한용어
예삿소리 : 예삿소리		
Fusobacterium	푸조박테리움(속)	푸소박테리움
Galactose	갈락토(오)스	갈락토제, 갈락토즈
Gelatin	젤라틴	겔라틴
Lysosome	리소솜	리조솜

영어용어	남한용어	북한용어
거센소리 : 거센소리		
Rheumatic fever	류마티스성열	류마치스열
Spatula	스파츄라	스파치라
예삿소리 : 된소리		
Actinomyces	악티노미세스	악티노미쨌스
Cardiac massage	심(장)마사지	심장마싸지
Erythromycin	에리트로마이신	에리트로미쨌
Lysozyme	리소자임	리조쨌, 리조짐
Salicylic acid	살리실산	살리쨌산
Streptomycin	스트렙토마이신	스트렙토미쨌
Tetracycline	테트라사이클린	테트라쨌클린

(3) 음이 첨가되거나 탈락된 예

영어용어	남한용어	북한용어
Alkali	알칼리	알카리
Celluloid	셀룰로이드	셀루로이드
Chlorhexidine	클로르헥시딘	크롤헥시딘
Energy	에너지	에네르기
Gutta-percha cone	가타파차콘	구타페르카뭇
Karat	캐럿	카라트
Modeling compound	모델링 콤파운드	모데린구 콤파운드
Nylon	나일론(사)	나이론실

다. 서로 전혀 다른 외래어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영어용어	남한용어	북한용어
Citric acid	시트르산, 구연산	레몬산
Nasogastric tube	비강영양 튜브	코존데
Probe	프로우브, 소식자	존데

라. 남한에서만 외래어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영어용어	남한용어	북한용어
Autoclave	오오토클레이브 가압(증기)멸균기	고압증기 멸균가마
Bur, Burr	바, 천공기	鏝(우)개
Chisel	치즐, 끌	논주, 끌
Cupid's bow	큐피드궁	활모양
Debridement	데브리망 좌멸괴사조직제거	괴사조직절제 괴사조직제거
Hand piece	핸드피스	뿔개용손잡이
Influenza	인플루엔자	들림감기
Inlay, Onlay	인레이, 온레이	끼우개
Le Fort type I fracture	Le Fort I 골절	웃턱뼈아래골절
Rubber bowl	라버보울	고무그릇

4. 남북한의 맞춤법, 띄어쓰기 차이로 용어표기가 달라진 경우

가. 사이시옷 사용법의 차이

남한에서는 사이시옷 소리가 매우 광범위하고 자유롭게 삽입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고유어 사이에서는 사이시옷 소리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영어용어	남한용어	북한용어
Lever principle (in Exodontia)	지렛대 원리	지레대의 원리
Toothbrush	칫솔	치솔
Auricle	귀바퀴	귀바퀴
Dorsum of nose	코등	코등
Gum	잇몸	이몸

나. '이(齒)'에 대한 표기법의 차이

'이(齒)'라는 용어를 쓸 때, 남한에서는 '이(齒)'가 들어간 단어에서 '니'로 소리날 때에는 원형을 밝히지 않고 '니'로 표기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원형대로 표기하는 원칙에 따라 '이'로 표기하고 있다.

영어용어	남한용어	북한용어
Incisor	앞니	앞이
Canine	송곳니	송곳이
Molar	큰어금니	큰어금이
Denture	틀니, 의치	틀이

다. 북한의 '형태주의' 원칙에 따른 차이

분단이후 북한은 한자어는 어느 위치에서건 해당 한자음대로 적는다는 철저한 형태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²⁰⁾

(1) 북한의 '형태주의' 원칙에 따른 차이

영어용어	남한용어	북한용어
Schizophrenia	정신분열증	정신분렬증
Chemotherapy	화학요법	화학료법
Basal metabolic rate	기초대사율	기초대사률
Autonomic nerve	자율신경	자를신경
Dysphagia	연하곤란	삼키기곤난

(2) '두음법칙'의 인정여부에 따른 차이

두음법칙도 형태주의 원칙의 한 예인데, 분단이전에는 남북 모두 두음법칙을 인정하였으나, 분단이후 북한은 첫소리의 'ㄴ', 'ㄹ' 조차도 본음대로 적고 발음도 그와 같이 하도록 규정함으로써²¹⁾ 차이가 나게 된 것이다.

영어용어	남한용어	북한용어
Temporary denture	임시의치	림시틀이
Clinical symptom	임상증상	림상증세
Phosphorus	인	린
Crepitus	염발음	념발음
Urea	요소	노소, 오즘소

라. '폐' 표기법의 차이

남한에서 인정하는 표기인 '폐, 폐'는 북한에서는 인정하지 않아 '메, 폐'로 표기하여²²⁾ 달라진 용어가 관찰되었다. 실제 치의학용어에서는 '폐'가 들어간 용어는 없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고 오로지 문제는 '폐'가 들어간 용어에서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영어용어	남한용어	북한용어
Pneumococcus	폐렴구균	페염알균
Pulmonary tuberculosis	폐결핵	페결핵
Menopause	폐경기	페경기
Nasal obstruction	비폐(색)	비도폐쇄증, 비폐

마. 띄어쓰기의 차이

북한에서는 전문용어 내에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대체로 확실히 지켜지고 있었으나, 남한에서는 북한에 비해 용어 내에서 많이 띄어쓰는 편이며 책마다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남한용어	북한용어
항생제 감수성검사	항생제감수성검사
아프타성 구내염	아프타성입안염
세균성 심내막염	세균성심내막염
치근용 발치결자	이뿌리용이(발)뽑개

5. 서울말과 평양말의 차이로 용어가 달라진 경우

남한에서는 방언으로 취급되는 용어가 북한의 문화어로 수용되어 남북한의 용어가 달라진 경우가 있다.

영어용어	남한용어	북한용어
Advantage	이점	우점
Anus	항문	홍문
Clasp	갈고리, 구	갈구리
Hip	엉덩이	엉뎡이
Maxilla	위턱뼈	웃턱뼈
Slice, Piece	조각	쪼각

6. 북한 치의학의 특이성을 반영한 용어

가. 남한과 다른 이념 체제를 반영하는 용어

북한은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주의 건설에 부합하는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쓰고 있어 뜻만 보아 우리들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예로서 '사회주의의학', '위생선전사업', '보건일군', '로동안전교양'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호전적인 표현들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치료전술', '합병증과의 투쟁대책', '항생제의 돌격료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나. 남한과 다른 학문적 배경을 반영하는 용어

북한 치의학이 러시아(소련)의 영향을 받으면서 또는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발전하면서

생겨난 것으로 보이는 남한에서는 생소한 용어들이 관찰된다.

남한과 같은 용어이지만 학문적 체계가 달라 다른 의미를 갖게된 경우가 있는데, 예를들면 '구강내과학'은 북한에서는 남한의 구강내과학, 치주과학, 치과보존학 등을 망라하는 학문 분야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외에 남한과는 다른 북한 치의학의 학문적 배경을 반영하는 용어들의 예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구강(과)의사 : 남한의 치과의사에 해당한다.
- 동의학적치료 : 우리민족의 전통적인 치료법인 동의약, 침, 뜸, 부항, 안마 등을 이용하는 치료법으로 남한의 한방치료에 해당한다.
- 동약료법 : 천연산물을 가공한 약물을 이용하여 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남한의 한약을 이용한 치료법에 해당한다.
- 이발뽑을 때 침마취 : 악안면부의 수술을 할 때, 특히 발치할 때에 사용하는 마취법으로 몸에 놓는 '몸침마취'와 귀에 놓는 '귀침마취'로 나눌 수 있다.
- 구개방어편부목 : 상악골 골절 때에 사용하는 상악골 고정 방법이다.
- 루트코장치 : 하악골 골절 때에 사용하는 악의 골격편 고정장치이다.
- 완게비치부목 : 하악골 골절 때에 상악에 장착하여 하악의 기능을 보장하면서도 하악 골편의 변위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는 장치이다.
- 아스트-1, 아크르-7, 아크르-9, 에그아쓰-12 : 합성수지 계통의 재료들 명칭이다.

IV. 고찰

본 연구를 통하여 남북한은 아직도 분단이전의 한자어 용어를 절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북한이 모두 한자어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같게 사용하고 있으며,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가 안될 정도는 아니었다. 남북한의 한자어 용어가 서로 다른 경우는 남북한이 한자

어 용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용어를 채택 하였거나 각기 일부를 변형하여 수용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추정된다.

남북한 치의학용어의 가장 큰 차이는 북한에서는 순우리말을 이용하여 다듬어진 용어를 일부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 중 해부학용어는 남한에서 1996년도에 제정된 해부학용어와 상당부분이 일치하기도 하지만, 임상 치의학 영역에서는 아직도 한자어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남한용어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북한의 순우리말 치의학용어는 김일성의 1964년 1.3 교시²⁵⁾와 1966년 5.14교시²⁶⁾에 따른, 한자어와 외래어를 정리하고 한글 고유어를 활용하자는 말다듬기운동의 결과이다. 이 운동에 의해 북한에서는 1978년까지 순차적으로 약 5만여 개의 학술 및 일반어 어휘가 다듬어졌고, 최종적으로 1986년, 약 2만 5천 개의 다듬어진 어휘가 확정되어 발표되었다.²⁷⁾ 이러한 말다듬기운동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민족어의 독자적 발전을 꾀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었지만, 실제로는 대남전략면에서 언어가 가지는 혁명적 역할을 높이고 대내적으로는 공산주의 혁명과 건설에 있어 정치사상 교육 및 주민 조직동원에 기여토록 하겠다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 같다.²⁸⁾ 결과적으로 말다듬기운동은 북한의 언어생활을 크게 변화시켜 남북한간의 언어 이질화를 촉진시켰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말다듬기운동에 따라 다듬어진 순우리말 용어의 사용이 1980년대 이후 상당히 감소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첫째, 다듬은 말을 공식적으로 버리고 원래 한자어 용어로 복원된 경우, 둘째, 다듬은 말을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결합된 형태로 다시 고쳐 다듬은 경우, 셋째 공식적으로는 다듬은 말을 사용해야 하나 사용 주체가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세가지 경우 때문이었다. 첫째 경우의 예로 1970년대 다듬어진 '끈끈막(←점막)', '밥길(←식도)', '맞음증(←적응증)', '꺼림증(←금기증)', '가들기(←경련)'와 같은 순우리말 용어는 1980년대 이후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한

자어 용어로 복원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경우의 예로 '구개파열'은 '입천장터지기'로 다듬어졌으나 잘 사용되지 않고 '입천장파열'과 같이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결합된 형태로 다시 고쳐 다듬어져 사용됨이 관찰되었다. 셋째 경우의 예로 '백혈구'는 '흰피알'로 다듬어졌고 공식적으로 '흰피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이후 실제 치의학 서적들에서는 '백혈구'로 사용됨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듬어진 치의학 용어가 공식적으로 원래의 한자어 용어로 복원되거나,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결합된 형태로 다시 고쳐 다듬어져 사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즉, 대부분의 경우는 다듬어진 용어가 계속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 주체인 치의학자들이 실제로 잘 사용하지 않고 한자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다듬어진 용어 중 일부 용어는 시대의 변천에 영향받지 않고 한자어 용어를 완전히 대체하여 일관성 있게 쓰여지고 있기도 한데, 예로서 '이삭기(←우치)', '이쏘기(←치통)', '이뽑기(←발치)', '입안염(←구내염)' 등을 들 수 있으나 이러한 완전히 정착된 다듬은 말 용어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다.

북한의 말다듬기운동은 대중토의와 전문가 협의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내각직속 국어사정위원회등의 국가 기관에서 강압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이며²⁹⁾ 실제 언어사용 주체와는 괴리된 인상을 준다. 즉, 북한의 말다듬기운동이 치의학 분야에서는 1970년대 상당한 영향을 주었지만 1980년대 이후 그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여 일부 용어들만 정착되게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전문용어 사용의 주체인 학자들이 이들 용어를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었으리라 사료된다.

분단 이후부터 남북한 모두 일본말 잔재를 없애려는 노력의 결과 우리말 용어가 꽤 개발되었으나 상당량의 서구식 외래어가, 즉 남한은 영어식 외래어, 북한은 러시아식 외래어가 도입되어 혼용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남북한의 어휘차이가 두드러지게 되었

다.²⁹⁾ 1950년대 이후 북한에서는 많은 러시아 의학, 치의학 서적들이 우리말로 번역되어³⁰⁾ 치의학 분야에도 러시아식 외래어가 상당수 도입, 혼용되었다. 예를들면 '세균의 group'을 의미하는 '세균그루빠', '발치용 elevator'를 의미하는 '엘레바뜨르' 등의 용어들이 사용되어 왔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점차 순우리말 용어로 대체되어졌다. 그러나 순우리말로 다듬기 어려운 약물명, 세균명 등의 상당수 된소리를 포함한 러시아식 용어는 1990년대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남북한의 외래어 표기의 차이는 북한이 1956년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³¹⁾』에서 “라틴어로부터 유래하는 학술 용어에 대해서는 라틴어에 대한 로씨야어식 발음으로써, 그의 표기법을 고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러시아어에 익숙하지 않은 남한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게 되었으나, 1984년 『고친 외래어표기법³²⁾』에서는 김정일의 “외래어를 표기할 때에는 그것이 어느 나라 말인가를 알아보고 그 나라 사람들이 발음하는 대로 표기하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라는 지적으로 원음주의를 지향하게 되어, 앞으로 남과 북의 외래어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공통성을 얻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미 어느정도 정착된 기존의 러시아어식 북한 치의학용어는 현재 수정 없이 사용되고 있다.

남북한 치의학용어에서 맞춤법의 차이는 용어 자체의 차이에 비하면 단순한 표기상의 문제이고 빈도가 낮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남북한 띄어쓰기의 차이는 북한은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는 전문용어는 품사소속과 형태에 관계없이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³³⁾는 규범을, 남한은 “전문용어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도 있다”³⁴⁾는 규범을 따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북한에서는 전문용어 내에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으나, 남한에서는 북한에 비해 용어 내에서 많이 띄어쓰는 편이며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많다.

남북한의 맞춤법 및 띄어쓰기에 따른 치의학용어

의 차이는 치의학계의 문제라기보다는 언어학계의 문제라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남북한의 언어학자들이 이에 대한 해결 노력을 함께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분단 초기 북한은 서울말을 표준말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66년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북한의 표준말인 문화어를 탄생시켰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방언이 문화어로 처리되어 남북한말의 지역적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³⁵⁾ 예를 들면 남한에서는 방언으로 취급되는 '홍문(남한: 항문)', '엉뎡이(남한: 엉덩이)', '쫓각(남한: 조각)', '갈구리(남한: 갈고리)' 등의 용어가 북한의 문화어로 수용되었으며, 남한에서는 이에 사용되지 않는 말인 '우점(남한: 이점)'이라는 말도 북한의 문화어에 해당하여 치의학 서적에서 사용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낱말은 약 4000개쯤 된다고 하나³⁶⁾ 실제 치의학 서적에서는 위의 예를 제외하고는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북한의 치의학 서적에는 남한과 다른 이념 체제를 반영하는 내용 또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책의 서문 또는 각 장의 첫부분에는 김일성 또는 김정일의 교시가 인용되고 있으며 본문에서도 용어사용에 있어 사회주의적, 호전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용어가 많이 사용된다.

북한 서적에서는 남한과 다른 학문적 배경을 반영하는 용어들이 흔히 관찰된다. 북한의 치의학에서는 남한과는 달리 러시아 및 동구유럽에서 정착된 구강학 중심의 교육 및 의료제도를 따라 '치과', '치과의사' 대신 '구강과', '구강과의사'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또한 북한의 유일한 치의학 정규 교육기관으로 알려져 있는 '평양의학대학 구강학부'도 명칭에서 보듯이 의대 소속으로 되어있어,³⁷⁾ 치의학의 독자성이 강조되기보다는 의학 속에서의 치의학의 역할이 강조되는 인상을 준다.

또한 북한 치의학은 세계의 공통적 의학 추세와는 달리 주체사상에 기초한 독자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한 특이성을 보인다. 이를 반영하는 용어의 예로 '이

발뿔을 때의 침마취', '동약진통제', 지혈목적으로 사용되는 약초를 원료로 한 '피땀이약', 악골골절 때 사용하는 바르는 약인 '접골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치의학 서적에 등장하는 '감탕료법', '직류이온도 입료법', '직류감응전기치료법', '광선료법', '대기료법', '파라핀치료' 등의 다변화된 치료법을 나타내는 용어들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 특히 침과 동약처방에 관한 많은 소개는 북한의 구강과외사 또는 구강외과외사가 동의학(남한의 한의학)에 관한 일정수준의 교육을 이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또 기구나 재료의 자체생산 및 국산화에 대한 노력도 각별한 것으로 보이는데, 절개를 위해 사용되는 '안전면도칼', 피부 봉합을 위해 사용되는 '말초리' 등의 용어가 그러한 노력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 용어의 특징 중 하나는 남한에서는 흔하게 사용되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용어들을 사람 이름을 빼고 독자적인 용어로 변형시켜 사용한다는 것이다. 예로서 '윈터씨 발치기자'를 '창모양이발들추개'로, 'Le Fort I, II, III 골절'을 각각 '웃턱뼈아래, 웃턱뼈중간, 웃턱뼈윗골절'로 '압뼈피관'을 '아래입술조직편을 리용한 웃입술 성형법' 등으로 바꾸었으나 유독 러시아(소련) 학자들의 이름이 들어간 용어는 '루디 꼬장치', '완께비치부목' 등에서 보듯 사람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남북한 치의학용어의 단일화를 위해서는 남한용어나 북한용어를 따라가는 단순한 용어의 통일보다는 아름답고, 쉽고, 간명하며, 우리 언어체계에 맞는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남북한의 치의학용어, 특히 한자어나 외래어 용어가 보다 쉬운 순우리말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는 이미 한자어 용어에 익숙해진 우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통일이 된 후 우리나라 치의학계를 이끌어갈 장차의 한글세대 치의학도들을 위해서이다. 또 다른 이유는 모든 자연과학 계통이 마찬가지로이지만 치의학 분야도 경제적 이윤추구활동과 연계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치의학용어가 더 이상 과거처럼 치의학계의 용어로만 존재해서는 안되며, 소비활동과

교육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일반대중과 언어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대중적인 용어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널리 사용되는 말을 의도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여간해서는 성취될 수가 없다. 강압적으로 바꾸든지 사회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호응하면서 바꾸든지 하는 두가지 경우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북한의 말 다듬기운동의 교훈을 보고 알 수 있듯이 강압적인 개혁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 남북한 치의학용어에 있어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우리 치과외사 자신이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우리 용어를 다듬고 손질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 방향은 남북한 사이에 공통 접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순우리말을 가능한 한 많이 사용하여 용어를 제정하되, 남북한이 함께 할 수 없다면 남한에서만이라도 용어제정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예견하기 어려우나, 이제 그때를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성심성의껏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다. 더구나 이런 기회에 지난 날에 이루지 못했던 치의학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는 일을 완수하는 것은 치과외사인 우리자신을 위해서나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V. 결론

남한과 북한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반세기 이상 적대적 분단된 상태로 직접상호교류 없이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환경이 달라 언어에서도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다. 분단 초기까지만 해도 남북한에서 사용하던 치의학용어는 대부분이 일본식 한자어 용어로서 커다란 차이가 없었다. 남북한 치의학용어를 비교해볼 때, 남북한 모두 한자어 용어를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남한에서 훨씬 강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1966년 이후 국가적 차원의 말다듬기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치의학용어도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졌다. 북한의 다듬어진 순우리말이 포함된 용어는 실제 치의학 서적에서는 1970년대에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으나 1990년대에 이를수록 점차 사용이 감소하고 다시 한자어 용어로 대체되는 양상을 띄거나,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결합된 형태로 다시 고쳐져 사용되는 양상을 띄었다. 그외에도 남북한 용어의 외래어 표기 차이,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따른 차이, 서울말과 평양말에 따른 차이, 북한 치의학의 특이성을 반영하는 용어에 의한 차이 등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차이는 북한의 말다듬기운동에 의해 초래된 차이에 비하면 매우 작은 차이이며 쉽게 남북의 통일안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

남북한의 치의학용어 통일은 현재의 남한용어 또는 북한용어 하나를 따라가는 단순한 용어의 통일 차원을 뛰어 넘어 세계의 치의학을 선도할 우리 치의학에 꼭 맞는 새로운 용어의 제정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용어 통일의 방향은 남북한 사이에 공통 접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아름답고 간명하고 쉬운 순우리말을 가능한 한 많이 사용하여 용어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되며, 이러한 용어통일사업은 지체할 수 없는 우리 세대 치의학계의 당면 과제임이 분명하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1. 조선어학회. 『한글 맞춤법 통일안』 경성, 조선어학회. 1933
 2. 지제근. “우리나라 의학용어의 제정배경.” 『대한의학협회 의학용어 세미나』 1993-1994, pp 1-4
 3. 정인혁. “남북한과학기술용어-해부학 용어편.” 『과학과 기술』 1993년 9월, pp 93-95
 4. 대한의학협회. 『의학용어 세미나』 1993-1994
 5. 김원옥, 길혜금, 강정완 등. “남북한 마취과학 관련 용어의 비교.” 『대한마취과학회지』 1996; 30: 1: 31-40
 6. 대한의사협회. 『남북한 의학용어』 서울, 도서출판 아카데미아. 1996
 7. 신승철, 박갑수. “북한의 의료정책과 치과의료실태에 관한 조사 보고.” 『대한치과의사협회지』 1990; 28: 10: 881-890
 8. 정원길. 『구강외과학(보건간부학교용)』 평양, 의학출판사. 1976, pp 전문참고
 9. 김정현. 『구강외과학(3판)』 평양, 고등교육도서출판사. 1981, pp 전문참고
 10. 『보철기공학(보건간부학교용)』 평양, 의학출판사. 1976, pp 전문참고
 11. 길봉선. 『치주병의 임상』 평양, 의학과출판사. 1991, pp 전문참고
 12. 리호우, 박수갑. 『6개국어의학용어사전(라조로영독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 pp 전문참고
 13. 국어사정위원회. 『다듬은 말』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pp 전문참고
 14.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1),(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p 전문참고
 15. 대한해부학회. 『해부학용어(넷째판)』 서울, 도서출판 아카데미아. 1996, pp 전문참고
 16. 대한치과의사협회. 『치의학용어집』 서울, 도서출판 아카데미아. 1996, pp 전문참고
 17. 대한의학협회. 『의학용어집』 서울, 도서출판 아카데미편집. 1992, pp 전문참고
 18.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구강악안면외과학 교과서』 서울, 의치학사. 1998, pp 전문참고
 19. 대한구강내과학회. 『구강내과학(제5개정판)』 서울, 신홍인터내셔널. 1998, pp 전문참고
 20. 이승우, 김종렬, 정성창 등. 『구강진단학(제5개정판)』 서울, 신홍인터내셔널. 1996, pp 전문참고
 21.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구강악안면방사선학(제2판)』 서울, 이우문화사. 1996, pp 전문참고
 22. 김종관, 채종규, 조규성 등. 『기초 및 임상치주과학(제2판)』 서울, 신홍인터내셔널. 1999, pp 전문참고
 23. 전국 치과대학 교정학 교수협의회. 『치과교정학』 서울, 지성출판사. 1998, pp 전문참고
 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 『조선말규범집』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8
 25. 김일성.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 『문화어학습』 1968; 2: 1-7
 26. 김일성.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옹기 살려 나갈 데 대하여.” 『문화어학습』 1968; 3: 1-9
 27. 정유진. “북한의 말다듬기.” 『김정일 시대의 북한언어』 서울, 태학사. 1997, pp 119-142
 28. 중앙정보부. 『북한 ‘말다듬기’ 자료집』 1973
 29. 김하수. “전문용어 제정과정에서의 언어적 문제.” 『대한의학협회 의학용어 세미나』 1993, pp 5-12
 30. 박형우. “북한의 의학 서적 목록.” 『연세의사학』 1997; 1: 2: 61
 3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조선어 및 조선문학연구소.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 평양, 과학원출판사. 1956
 3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 “고친 외래어표기법.” 『문화어학습』 1984; 3
 33. 한글학회. 『한글맞춤법통일안』 한글학회. 1989
 34. 남기심, 김하수. “북한의 문화어.” 『북한의 말과 글』 서울, 을유문화사. 1989, pp 81-99
 35. 김종렬. 『북한의 구강보건 의료의 현황 분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992, pp 10-13
- ※ 인용된 북한 관련자료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광화문 소재)에 있는 자료와 저자가 개인적으로 입수한 자료를 기초로 하였음.
- ※ 저자가 약 2000개의 치의학 관련용어를 정리한 '남북한 치의학 관련용어 비교표'가 필요한 분은 저자에게 직접 연락 바람.